

맥주박 가격 일제히 인상

OB 맥주와 크라운맥주의 맥주박 가격이 일제히 1987년 1월 1일과 2월 1일을 기해 9%와 13.4%인상되어 OB 맥주박은 2.5톤차량 한대분이 공장도 60,500원에서 5,500원이 인상된 66,000원으로 크라운맥주박도 역시 2.5톤차량 한대분이 공장도 45,100원에서 6,050원 인상된 51,150원으로 인상조정되었다.

지난해에도 일반 사료가격은 인하되고 있는데 유독맥주박값만 인상되어 낙농가들로부터 항의가 많았으며 본협회에서도 맥주박의 영양가에 비하여 현재도 높은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인상하고 있으므로 인하건의를 하는 한편 독과점의 횡포를 규제하여 줄 것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제의한바 있으나 금년에 또다시 인상되어 낙농가의 분노를 사고 있다.

맥주회사측은 국산 맥주맥을 100%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맥주맥 값이 6%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금부담, 창고료등의 인상으로 불가피한 한편 맥주박 부족으로 현재 계속 수요를 충족치 못하고 있으므로 가격인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는 반문이다.

그러나 소값하락과 낙농불황등으로 소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초창기 맥주박을 폐기하던 때를 생각한다면 이와같은 독과점의 횡포는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이 낙농가들의 반응이며 낙농가들이 흥분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맥주회사에서도 높은 원가상승요인을 전부 맥주박 사용자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도 일부를 흡수하고 최소한을 맥주박 사용자에게 전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다.